

방송사 협업 가능 증명 '세모방' 의미있는 발자취



약9개월 동안 세상의 다양한 방송들 소개 마지막까지 시청자들에게 행복한 기운 전달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이 버스 승객들과 친숙한 만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며 시즌을 마무리 지었다. '세모방'은 불가능한 줄 알았던 방송사 간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약 9개월 동안 세상의 다양한 방송들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디까지 가세요?' 부산 편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시즌 종영을 맞이한 '세모방'의 과감하고 의미 있는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봤다.

MBC '세모방: 세상의 모든 방송' (이하 '세모방')은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방송 프로그램에 MC 군단을 투입, 실제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촬영 전반에 걸쳐 리얼하게 참여하며 방송을 완성하는 아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28일 '세모방'은 '워런티 MC' 송해-하임-이상벽-임백천의 화려한 캐스팅과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담은 몽골 CI의 '도시 아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낚시 방송 리빙TV의 '형제광조사', 어르신들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도모하는 실버아이TV의 '스타쇼 리듬댄스' 조합을 선보이며 첫 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협업을 진행했던 세 프로그램 모두 지상파 방송에서 낮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고, '도시 아들'의 경우 다큐멘터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리얼한 몽골 유목민들의 일상을 담아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색다르고 독특한 프로그램들의 등장에 대한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그중에서도 '형제광조사'의 연출자 광피디는 '낚시 계의 홍상수'라고 자칭하며 독보적인 연출 스타일을 선보여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시청자들의 재출연 요청이 쇄도해 다시 한번 '세모방'을 찾아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

다. 광피디 이외에도 '스타쇼 리듬댄스'의 리듬댄스 교수 해오화, 인도네시아 '레펠홀쇼링'의 노루멘트 폭격기 쇼호스트, 포항MBC '트로롱'에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던 트로트계의 엑소 신유 등 다양한 캐릭터의 출연자들이 인기를 얻었다.

이 밖에도 '세모방'과 협업을 진행한 많은 프로그램이 풀라보 이후 SNS나 VOD의 조회수가 폭발하는 등 다양한 수혜를 입으며 주목을 받았고, 프로그램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덕분에 '세모방'은 진정한 상생 예능이 라는 평가를 받기도.

무엇보다 '세모방'은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협업을 시도하며 신선한 것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독특한 지역적 특색이 녹아있는 제주도나 포함의 지역 방송과도 함께 했다. 지상파 예능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 예능이나 모바일 예능에 도전장을 내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버스와 허

다까지 가세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시청자들과 직접 만남을 가졌다. 출연진들은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승객을 목격하자 배웅했고,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던 이들은 어느새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워져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어디까지 가세요?' 공동 프로젝트는 버스 승객들의 평범했던 일상을 특별한 추억으로 탈바꿈시켰고, 안방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달구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첫 방송 이후 약 9개월 동안 끊임 없는 시도와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송사/방송사 간의 협업을 현실로 이루어 낸 '세모방'. 지역 버스와 '어디까지 가세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며 이젠 시즌 종영을 맞이했지만, 과감한 협업 시도를 통해 예능 프로그램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하며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겼다.

한편 '세모방'은 부산 버스와 '어디까지 가세요?' 공동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지난 10일 시즌 종영했다.

'미스티' 진짜는 지금부터..'범인 찾기' 미스터리 서막



지난 10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미스티' (극본 재민, 연출 모안일, 제작 글엔그림) 4회에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던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밝혀졌다. 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폴트계의 신성 케빈 리 (고준)였고 고해란 (김남주)은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에 소환됐던 것. 증거와 정황 모두 해란을 가리키는 기운

데 "나 아니라고"라는 그녀의 외침은 통할 수 있을까. 남편 강태욱(지진희) 덕분에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자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된 해란. 그가 홍보수석에 내정자라는 걸 몰랐다는 듯 연기를

했고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언론인으로서의 원칙과 소신을 어필하기도 했다. 과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성공인 거냐는 태욱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최고로 높이'라고 대답했던 해란이었다.

태욱은 그런 해란을 사랑했기에 태국까지 날아와 가까이 그녀의 배경과 명함이 꽤했다. 하지만 해란의 옛 연인 이재영, 즉 케빈 리는 그녀의 성공에 제동을 걸었다. 태국에서 만난 태욱과 술을 마시며 의도적으로 해란이 떨어뜨린 브로치를 건넨 것. 이에 한국으로 돌아온 태욱은 "당신 브로치, 식탁에 올려놔서 케빈 리가 당신한테 전해주려다"이라며 집을 쫓겨 집을 떠났다.

놀라서 아무것도 못한 채 태욱을 보낸 해란은 화가 끝까지 치밀었고 케빈 리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허튼 수작 부리지만 해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경고했다. 또한 태욱이 받은 사건이 그가 모델

이번주 가요계, 설 특수 노린다



설, 올림픽 특수를 노려라. 이번주 가요계는 잠시 빼곡한 컴백 라인업이 휩쓸고 지나갈 시간이다. 1월부터 쏟아졌던 막강한 신곡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설을 맞아 잠시 숨 돌릴 틈을 맞는 것. 그래서 다음주 컴백 주자들의 신곡이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로이킴과 박보람부터 하이리이트 양요섭까지 솔로 주자들의 활약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양요섭 vs 로이킴

그들 하이리이트 멤버 양요섭은 오는 19일 솔로 컴백에 앞서 12일 신공개곡 '별'을 발표한다. 양요섭은 5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 하이리이트와는 또 다른 색깔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 신공개곡으로 솔로 컴백의 열기를 높일 예정이다. 양요섭은 하이리이트의 메인보컬로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보컬로서 매력적인 음색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가창력이 무기. 신공개곡부터 19일까지 이어질 솔로 컴백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로이킴도 12일 오후 6시에 신곡 '그때 헤어지면 패'를 발표한다. 이번 싱글은 미국에서 화합에 매진

중인 로이킴이 팬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로이킴은 이 곡을 통해서 쓸쓸함과 고독, 이련한 감성을 담아냈다.

'그때 헤어지면 패'는 로이킴의 자작곡으로, 서로 지주 볼 수 없는 롱디 커플의 이야기를 한국 팬들 곁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도만 하는 자신의 이야기에 빚대어 표현했다. 흥남 로이킴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13일 미로 vs 박보람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로도 신곡으로 돌아온다. 미로는 오는 13일 오후 6시에 새 싱글 '컴(COME)'을 발표한다. 이는 3부작 시리즈 '드림스 컴 트루(DREAMS COME TRU)'의 두 번째 이야기다. 이번 싱글에는 타이틀곡 겸 아이시 유어게인 (Can I See You Again)과 왓 디드 히 세이(What Did He Say) 두 곡을 담았다.

미로는 전곡 작사, 작곡은 물론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해 자신만의 음악 색깔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기존과 다르게 힘을 뺀 랩 스타일로 변화를 주며 새로움을 시도했다. 가수 박보람도 사인곡과 공개연애 선언 이후 처음으로 신곡을 발표하게 됐다. 오는 13일 오후 6시 발표할 신곡은 박보람도 감성을 담은 발라드 곡이다. 더 깊어진 감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신곡 '애쓰지마요'는 이번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곡으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녹여낸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겼다. 박보람의 특색 있는 보컬이 어떤 조화를 이뤄냈는지 관심을 모은다.

김희애부터 손예진까지...총무로 女우들 돌아온다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들이 돌아온다. 매 작품마다 독보적인 미모와 우아한 스타일링으로 화제를 모으

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워너비로 불리는 김희애가 '사라진 밤'으로 가장 먼저 관객들과 만난다. '사라진 밤'은 국과수 사체보관실에서 사라진 시체를 두고 벌이는 단 하루만의 강렬한 추적 스릴러.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대기업 회장이자 남편에게 살해당한 후 사라진 아내 역을

맡은 김희애는 우아하고 도도한 외모 뒤 또 다른 카리스마로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도둑, 톱스타, 언더보스까지 팔색조 매력의 김혜수는 국가 부도까지 남은 시간 단 일주일 1997년 IMF 위기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로 돌아온다. 손예진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로 오랜만에 멜로를 선보인다. 일본 동명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이번 작품에서 상대 역을 맡은 소지섭과의 완벽한 케미는 물론, 따스한 감성이 붙어있는 연기로 원조 멜로 퀸의 위엄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성령은 '독전'으로 극장가를 두드린다. '독전'은 미약 보스 '이선생'을 잡기 위한 이들의 암투를 그린 영화로, 스피디한 전개와 스타일리쉬한 액션을 예고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음력 12월 27일)



▶**신세** 남달리 이해력이 빠르고 판단력도 있으나 매사 무슨 일든 지나치게 신경 쓰면 힘이 된다. 타인을 원망하기 이전에 2, 5, 9월생은 자신을 낮추는 면모를 보이라. 11월생 자식을 둔 부모는 좀더 관심있게 지켜보며 사랑으로 감싸줘야 탈선을 막을 듯.



▶**신세** 고집이 남보다 강해 같이 사는 사람 의견을 듣지 않는 격. 자신이 옳고 그들을 판단해 잘못된 성격을 고쳐나가라. 그, 나, 사 성씨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성공이 보장된다.



▶**신세** 마음을 바로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호흡을 좀더 같이 하라. 잘못하면 중심 없는 행동을 할까 염려되는 때다. 뜬구름 잡으려는 허황한 마음에서 벗어나 삶의 즐거움을 노동의 대가로 찾아볼 것. 땀 흘린 뒤에 보람을 맛보라.



▶**신세** 인생은 즐거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경기에 짜증이 난다고 하는 일 변동하려 서둘러 말라. 특히 식당, 모텔, 식품업 운영자는 고비를 슬기롭게 넘김이 좋겠다. 음식물 조심하라.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으니 청결히 하라.



▶**신세**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자녀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고 애정에 또한 문제가 있을 듯. 1, 2, 7월생 중 그, 나, 사 성씨 마음을 비우고 이해할 때 약이 됨을 알라.



▶**신세** 스스로 어떠한 일에 몰두하려 하나 생각만큼 되지 않는다. 만족은 끝이 없는 것이니 올려보기 이전에 아래를 보고 쌓아갈 것. 그, 나, 오 성씨 말을 먼저 또는 많이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 앞서지 말라.



▶**신세** 애정에서 질투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이니 욕심에서 벗어나라.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고치고 교만하지 말 것. 1, 2, 5, 7월생 넘치 못할 고개를 넘으려 말 것.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따로 있다. 걷기에 위험이 따름을 알라.



▶**신세** 떠나가는 사람 잡으려고 안간힘 써야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을 사귄 때는 계산하지 말고 선으로 베풀라. 3, 7, 9월생 신병 수가 따르니 매사우울해하지 말고 취미생활 등 무엇든 열심히 하라.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



▶**신세** 노력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을 잘 알아야 한다. 2, 6, 9월생 사랑에는 진실이 있어야 상대에게 존경받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와 멀어지는 격. 자만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 없도록 깨닫기 주변을 정리하라.



▶**신세** 여성은 애정에 불안과 허무함이 나타나는 시기다. 사랑은 원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온다. 자신감을 갖고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라. 1, 4, 8월생 가정을 소중히 하지 말고 노력한 만큼 일을 가져볼 것. 생활에 활력소 역할이 됨을 알 것.



▶**신세**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자신에게 피해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더 큰 상처 받지 말고 제자리 찾아 안주하라.



▶**신세**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고집이 세다 보니 신경 또한 예민해지고 상대와 심각하게 대립할 수 있다. 각별히 조심하라. 2, 5, 6월생 자신과 싸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욕심부리지 않는다면 계획하는 일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